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0년
2021년 12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5년 제 265 호

창종 50년, 다시 앞으로 백년 '용맹정진' 서원



12월 15일 총지사 기념법회 봉행 다큐멘터리 불교TV서 23일 방송

창종 50년 기념법회가 오는 15일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된다.

또 불교총지중 50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창교절 하루 전날인 12월 23일 불교TV에 방영될 예정이다.

기념 법회에서는 창종 50년을 맞아 종조 원정 대성사의 창종 정신을 계승하고, 이후 반세기 종단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간다는 각오로 제19대 통리원이 준비해온 기념사업 중 종단 50년의 역사를 총망라하여 정리한 책 '종단 50년 사'와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의 봉정식이 봉행된다.

이에 앞서 기념사업 일환으로 지난 1월

29일 종조 원정 대성사의 114주년 탄신대재를 봉행하며, 원정기념관에 종조 진영을 새롭게 모신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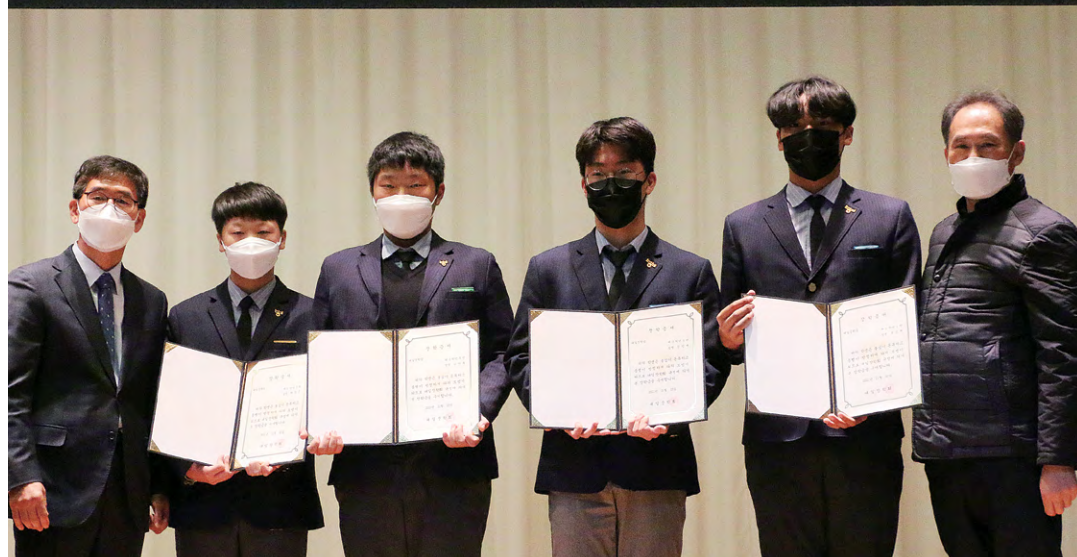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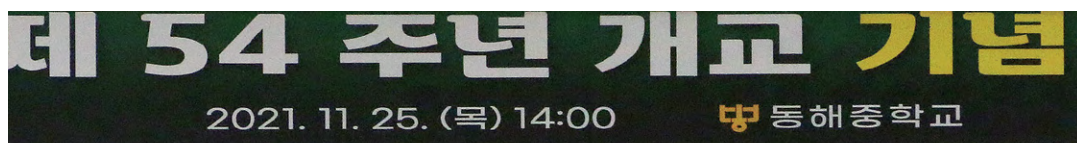
종령 법공 예하의 법문과 통리원장 축사, 불교계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 새로 제작된 불교총지중 홍보 영상 등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또 위드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서 서울경인교구 마니함창단의 축하 공연도 모처럼 선보일 예정이다.

기념법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 규모와 사부대중의 참석범위가 추후 종단 홈페이지와 사원을 통해 재 공지할 방침이다.

박재원 기자

종립 동해중학교 개교 54주년

대일장학회 장학생 5명 선발, 첫 수여



종립 동해중학교 개교 54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1월 24일 동해중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일장학회 첫 장학생으로 다섯 명이 선발되어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또 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다.

기념사에서 동해중학교 송인근 교장은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학생들의 부단한 노력이 어우러져서 지역에서 인정받는 명문 학교로 성장해 왔다."고 설명하고, "오늘 개교 54주년을 맞아 동해중학교의 새로운 역사와 전통을 창조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동해인들의 힘찬 비상을 다짐하자."고 제안했다.

대일 장학생 △3학년 4반 조은제, △3학년 2반 김민재, △2학년 5반 김지후, △1학년 2반 박진근, △1학년 6반 정승화 이상 5명, 근속 표창 대상 △근속 30년 주무관 김효선 △근속 10년 교사 김대엽 이상 2명



송하 대정사 열반 1주기 추선 불사 봉행

수행과 전법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 오다 지난해 열반에 든 송하 대정사의 열반 1주기 추선불사가 지난 20일 부산 정각사에서 주교 범경 정사의 집공으로 유가족 덕광 정사(실지사 주교)를 비롯한 스승들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

되었다.

송하 대정사는 1981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 수료하고 승직에 올랐으며, 제 5,6,7대 중앙종의회 의원을 거쳐 제 6,7대 종의회 의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앞장서 왔다.

중/조/법/어

부처는 자기 마음에서 찾아야하고 진리는 생활중에서 찾아야하며 극락 또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지 면 안 내

2면 창종 50년 기념 축하 서화

6,7면 불교총지중 50년, 종조발전 좌담회

5면 생활법문/보시바라밀

10면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⑧

불교총지중 창종 50년 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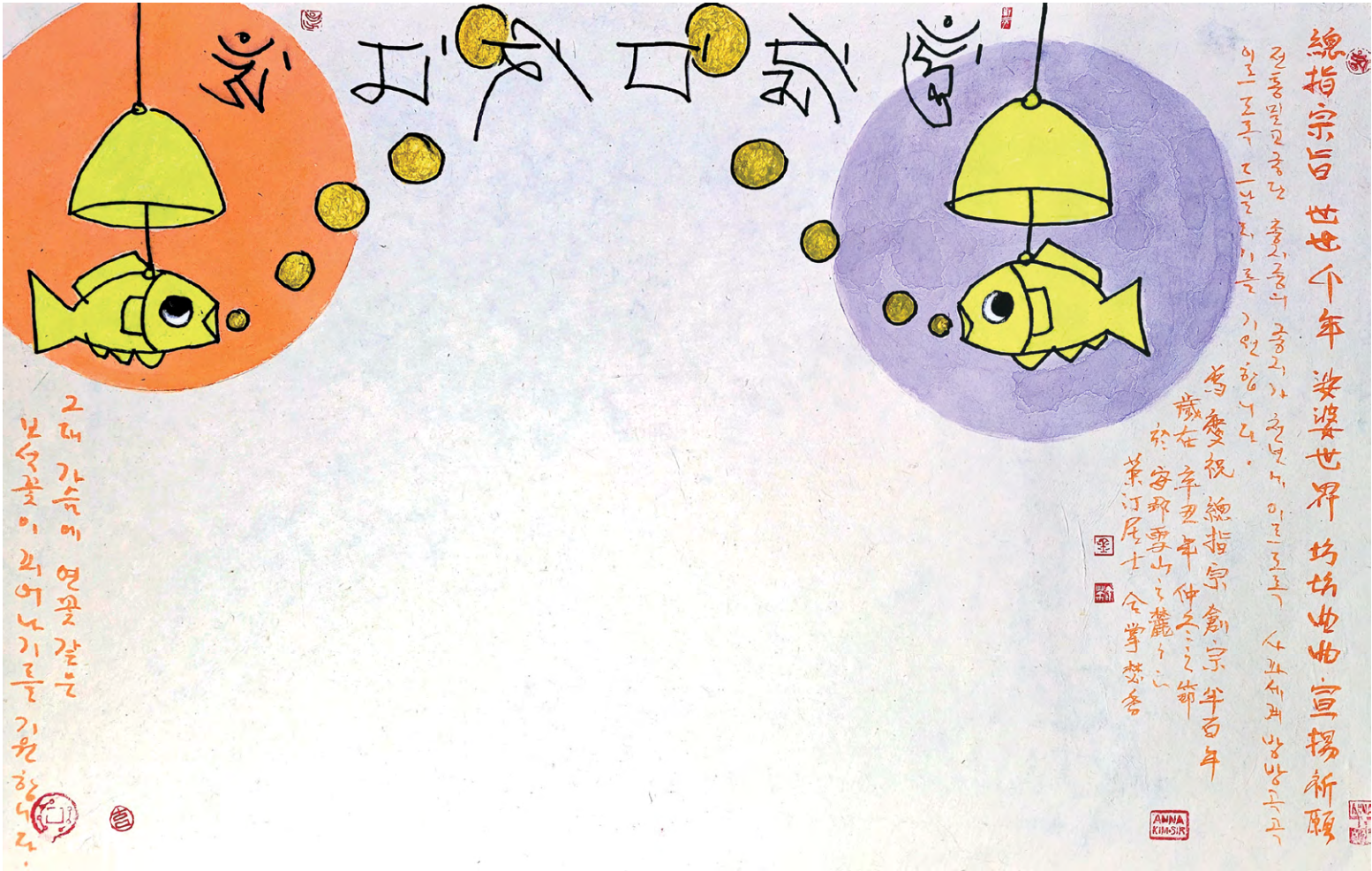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0년 12월 15일 오후 2시 수요일

장소 _ 총지사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창종 50년 기념
축하서화

“그대 가슴에 연꽃같은 보석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옴 마니 반메 흠

總指宗旨
世世千年
娑婆世界
坊坊曲曲
宣揚祈願
전통밀교종단 총지종의 종지가
천년에 이르도록
사바세계 방방곡곡 이르도록
드날리기를 기원합니다

爲慶祝總指宗創宗半百年
歲在辛丑年仲冬之節
於安那雪山之麓之下
茶汀居士合掌焚香
歲辛丑孟冬之節
爲總持宗創宗半百年
於安那雪山之麓
茶汀居士合掌焚香

작가 다정 김규현 화백 베이징 중앙미술 대학과 라싸의 티베트대학에서 수인목판화와 탕카를 연구하고, 현재 네팔 안나푸르나 부메(Bhume basic S.)학교 명예교장이자 미술교사로 현지에서 직접 아이들에게 그림을 지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에서 '네팔 학생 돕기 부채전' 개인전을 열었다.

내 눈높이로 읽는 소의경전 <5>

대일경_주심품⑤

‘보리는 여실(如實)하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

승원 정사

‘일체지지’는 괴로움을 없애고 갖가지功德을 받게 합니다. 일체지지는 보리심(菩提心)을 원인으로 하고 대비(大悲)가 근본이 되며 방편이 구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보리란 ‘여실(如實)하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이며 마음과 보리와 허공의 성품이 동일하므로 스스로의 마음에서 보리와 일체지지를 구해야 한다고 주심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마음은 알아지는 작용, 즉 육문(六門), 눈에서 봄이, 귀에서 들음이, 코에서 냄새가, 혀에서 맛이, 몸에서 감촉을 느끼는 끊임없이 알아지고 있습니다. 그 앎을 바탕으로 아주 짧은 순간 그것을 무엇인지 해석하는 작용과 반응하는 심리현상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 모두가 대상과 함께 알아지는 작용, 즉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앎에 실재하는 것과 마음이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여실하게 자기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 앎에 실재하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재를 모르고 마음이 해석한 관념만을 알 뿐입니다.

지금의 앎에서 어떤 것이 실재이고 어떤 것이 마음이 지어낸 관념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실재를 불교에는 빠라마타, 법(法)이라 하고 법에 대한 이해를 통찰지, 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서는 지금 앎에서 실재 있는 법을 끊임없이 알아갈 때, 실재하는 법의 무상·고·무아의 특성을 알 수 있으며 수행은 이 실재하는 법을 무상·고·무아라는 견해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과 보리와 허공의 성품이 동일하다는 것은 허공이 텅 비어있지만 구름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처럼 앎에서 실재하는 법도 끊임없이 생겨나고(무상) 그 무상한 변화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 연기(緣起)한다(무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내게 알아지는 앎에서 실재하는 법을 알아가게 되면 그동안 집착하던 대상들, 예를 들면 나와 세상 같은 그런 존재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이며 실재하는 것에는 어떠한 집착할만한 것이 없으며 염오(厭惡)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염오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며 묶여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

해 알아차릴 때 알아지는 것에서 실재와 관념을 이해하고 실재 있는 법이 ‘무상·고·무아’라는 허공상의 특성이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집착하던 모든 대상을 염오하게 되고 대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탐진치의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보리는 여실(如實)하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수행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경스님은 법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불교에서 말해지는 모든 실재, 곧 법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앎을 기준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순간 앎의 진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앎의 진행에 진짜인 것, 실제 체험되는 것, 이걸 우리는 실재, 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손의 느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손입니까? 아니면 느낌입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느낌입니다. 손은 느낌을 통해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느낌이 실재이고 손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실재 있는 느낌을

아십시오. 무엇이 어떤 느낌이 되었든 단지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을 단지 느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느낌이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아픈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러한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실재는 다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소리가 새 소리든 바람 소리든 자동차 소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들음에 있었어 새, 바람, 자동차란 것은 실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안에 있으면서 자동차 소리를 들을 때 실재 아는 것은 ‘소리’입니다. ‘자동차’는 소리를 통해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실재 있는 소리를 아십시오. 무엇이 어떤 소리가 되었든 단지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소리를 단지 ‘소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소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자동차 소리, 시끄러운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 이러한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실재는 다 같은 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있을 때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은 실제로 내 삶에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 내 아들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들이 내 앞에 있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 아들은 실재 아들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통찰할 수 있다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의 내용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를 사기 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든 둘 다 몇몇 영상과 언어화된 내용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생각도 실재의 물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두려워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 걱정합니다. 이런 생각의 내용을 마치 내가 지금 체험하듯이 믿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지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체험하듯이 고통 받고 있다면 이걸 진정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단지 ‘생각있다’ 라고 아십시오.”



불교총지종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종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종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2021년 11월 1일 ~ 12월 31일

대 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

문 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02-552-1080~3)

또는 전국 불교총지종 사원(총지신문 11면 사원 일람 참조)

 불교총지종

보문사 문화체험관 건립 착공법회 봉행

선불장 중창, 천수천안관세음보살 봉안 예정

대한불교보문종(총무원장: 인구 스님)이 11월 19일 총본산 탑골승방 보문사에서 ‘문화체험관 건립 및 선불장 중창불사 착공법회’를 봉행하고 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이번에 건립될 보문종 문화체험관은 보문사 경내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힐링 명상, 다도, 인경, 전통공예, 사찰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스님들의 수행공간인 선불장 등으로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선불장에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상’과 ‘관세음보살 42수 삼천원불’이 봉안될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김영배, 기동민 성북구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보문



‘문화체험관 건립 및 선불장 중창불사 착공법회’가 보문사에서 봉행됐다.

종 종정 대인 스님, 총무원장 인구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사원만회향을 기원하는 풍물패의 길놀이와 법고를 시작으로 축

원과 경과보고, 발원문 낭독에 이어 진여단 부처님을 대웅전으로 모시는 이운식으로 마무리됐다.



김대현 종무실장 통리원 예방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종무실장이 지난 11월 3일 통리원 총본산을 예방하여, 서원당과 종조전을 참배 후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불교 현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사진은 왼쪽부터 총부무장 원당 정사, 통리원장 인선 정사, 김대현 종무실장, 이상호 종무관, 강성태 종무1과장

내마음의 등불

자석사 도우 정사

인을 지으면 과를 면하지 못한다

봄에 곡식을 심으면 가을에 익지 않으려고 해도 마침내 익지 않을 수 없으며, 과수(果樹)에 열매가 맺으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마침내 떨어지며, 사람이 술을 마시면 취하지 않으려고 해도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모든 뿌리를 심으면 싹트지 않으려고 하여도 마침내 싹이 트며, 사람이 독을 먹으면 죽지 않으려고 하여도 마침

내 죽게 되며, 사람이 이별할 근본을 심으면 이별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별하게 되며, 사람이 뒷간에 들어가면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해도 마침내 맡게 되며, 늙고 병들고 죽을 인연을 심으면 이 환난을 면하고자 하여도 마침내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불가득경(四不可得經)〉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자석사 도우 정사님은 선림사 도관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지혜의 눈

‘몸은 보리수이고 마음은 명경대와 같아’
6조 혜능대사 계송 노자의 사상과 닮아

시비와 선악과 미추의 이분법적 세계는 사람들에게 질서정연한 길을 안내한다. 인류에게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문명의 변화가 이어졌고 현재에 이르렀다. 현재 인류의 문명을 발전의 산물로 본다면 그것은 문명의 길이고 진보의 길이다. 근대 문명을 이룩한 것은 17세기 과학 혁명과 계몽주의의 산물로 이성(理性)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는 이성의 작용에 의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끊임없는 발전이라는 낙관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이성을 중시하는 근대의 흐름은 데카르트에서 비롯했다고 한다. 그의 도구적 이성관은 오직 주어진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계산적인 합리성, 수단적인 합리성만을 중시하였다.

어떤 목적에 대한 탐구나 반성적인 성찰의 의미를 상실한 이성은 광기로 변하게 된다. 근대 이후의 서구 문명은 이성 중심의 이분법에 의해 배제되고 타자화된 것들을 절멸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이성적 사고에 의해 이루어진 근대 과학기술문명으로 전 세계의 약소민족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라는 대량학살에 이용되었다. 근대사회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성의 작용에 의한 합리적인 조치였지만 그 이성은 특정한 집단이나 민족 등의 이성이었다. 말하자면 자신들을 시(是)와 선(善)과 미(美)의 쪽에 두고 자신들과 다른 집단, 이민족, 타 인종들은 비(非)와 악(惡)과 추(醜)에 두었다. 문제는 단순한 구분으로 끝나지 않고 배제와 절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이 나에게서는 그러한 이분법적 논리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도덕경 2장의 천하皆知미지위미사오이(天下皆知美之爲美斯惡已)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다로 알고 있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추한 것이다.”로 설명된다. 이 내용은 미(美)를 규정함으로써 미의 기준이 절대화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배제되

어 버린다. 문제는 미에 속한 것들은 다시 미주로 나뉘고 추로 구분되는 것들은 배제되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고, 미(美)가 미(美)이려면 추(醜)가 있어야 된다. 미와 추는 갈라놓을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것이다. 그러기에 시와 선과 미만 남아있으면 다시 그 안에서 비와 악과 추가 만들어지게 된다.

모든 문명은 이분법적 논리위에 세워진 구조물이다. 문명의 전개과정은 중국문명이 세계를 화(華)와 이(夷)로 가르고, 그리스 문명이 세계를 헬라스와 바르바로이로, 근대유럽이 세계를 문명과 야만으로 나누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배제되고 타자화된 세계는 끊임없이 수탈되고 추방되고 절멸되어 왔다. 세계를 이분법적 틀로 보는 태도는 동서양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다.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극성을 부렸던 때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였다. 도덕경은 그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의 병리현상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로 제시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역사는 노자의 사상을 주류로 선택하지 않았다.

6조 혜능대사의 계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먼저 신수의 계송은 ‘신신보리수(身是菩提樹) 심여명경대(心如明鏡臺) 시시근불식(時時勤拂拭) 물사악진에(勿使惹塵埃)’로 “몸은 보리수이고 마음은 명경대와 같아 늘 털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이다. 혜능의 계송은 보리본무수(菩提本無樹) 명경역비대(明鏡亦非臺)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하처악진에(何處惹塵埃)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낄 것인가 라는 내용이다. 신수의 계송은 이분법적 세계관과 통하는 부분이 있고 혜능의 계송은 노자의 사상과 닮아있다. 그러나 유무상생(有無相生 난이상성(難易相成이라는 노자의 말씀보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라는 혜능의 말씀이 더 와 닿는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연명의료 40

조현두 의학박사의 요양병원 이야기 요양원 가는 길

법상 정사

카톡을 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니 얼마 전 아내의 오랜 친구가 모친상을 당하고 연로한 부친만 시골에 남아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아내 : 상 치르느라 고생 많았지요. 정리되면 언제 한번 볼까요?

아내 친구(이하 친구) : 초대는 고마운데 전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세요. 아버지를 평생 살았던 고향을 떠나 서울의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 형편이네요. 하필 어버이날에. 올해 어버이날은 너무 심란합니다. 지금 시골에 왔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유품도 정리하고 아버지 요양원 가실 집을 정리해드리려고요. 트렁크 한 개로 만드신다고 해도 아버지는 사진 앨범 몇권을 꼭 가져가려고 하네요. 트렁크에 옷가지만 해도 가득한데.

아내 : 어찌지요? 마음이 아파서. 같이 지낼 때는 모르다가 한 분 가시니 정리할 일이 많지요? 아버지 힘들지 않게 형제들끼리 잘 의논해서 집 근처로 모시는 게 어때요? 서울은 말투부터 다르고 인심도 다르고 친구도 없고.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네요. 아버지 입장이 되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며느리보다 자기가 자주 찾아보아요.

친구 : 큰오빠(장남)가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인근의 요양원에 예약을 해두었다고 해요. 큰오빠가 서울에 있었던 관계로 여태까지 동생들에게 미루었던 숙제를 하고 싶어 하네요. 요번 일은 그저 입 꼭 다물고 따르려고 합니다. (먼저 가신) 어머니도 그리 원하실 것 같네요.

아내 :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식사 문제만 해결되면 고향 집에 계시도

좋을 것 같은데 식사 준비를 전혀 못 하신다고 하니 안타깝네요.

친구 : 아버지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듯해요. 처음엔 우시기만 하다가 큰아들이 몇 번이나 이야기하니 흐름에 체념하고 큰아들 따라가기로 했어요. 어쩌면 새로운 도전을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시골집도 처분할 예정이라 친정집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심란합니다. ‘흔적’이란 의미를 깊이 생각 안 하려고 애씁니다.

아내 :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잘 도와주실 겁니다. 마음 편하고 먹고 언제나처럼 부모에게 후회하는 말이 안 생기도록 잘 해드려요. 자기도 마음 다잡고 잘 살고, 알았지요?

카톡의 내용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남자가 먼저 죽으면 여자는 큰 문제 없이 여생을 보낸다고 한다. 자녀 집에 가 손주들을 돌봐 주기도 하고 음식 준비나 집안일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여자는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혼자서도 큰 불편 없이 사는 것이다. 문제는 아내가 먼저 죽는 경우이다. 당장 밥해줄 사람이 없고 집안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 곤란하게 된다. 요즘은 동사무소 등 지자체에서도 우미들이 독거노인을 도와주기도 한다. 나도 걱정이 되어 물었다.

“여보, 혹 당신이 먼저 가면 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나에게 요리를 배우세요. 홀로될 때를 생각해 집안일도 나누어 직접 해봅시다.”

남자들이 퇴직하면 집안일을 아내와 함께해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 그리고 요리학원에서 몇 달간 배우기를 추천한다. TV에서 남자들이 퇴근 후 요리학원에 가는 것

을 본 적이 있다. 나이 지긋한 분, 젊은 사람 등 칠팔 명이 요리를 배우는데 왜 요리를 배우는지 궁금했다. 기자가 인터뷰하니 이유도 아주 다양했다. 부인을 사별한 사람, 객지에서 생활하는 중년, 혼자서 사는 청년들의 사연이 있었다. 이 유가 어떻든 혼자자 된 남자는 식사가 큰 문제이다.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아파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리를 배워 스스로 음식을 해 먹어 보고 아내에게 요리를 해주기도 하길 추천하고 싶다. 시중에는 즉석 음식이 많아 조금만 배워도 이런 손쉬운 음식으로 식사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아내 친구의 아버지도 식사 문제만 해결할 수 있었다면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신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집까지 팔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마음 편한 고향에서 오랜 친구들과 여생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정년이 되면 요리와 가사에 적극 참여하여 같이 해보자. 최근에는 남성의 평균수명이 여성과의 격차를 꾸준히 따라잡아 2019년에는 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6년의 차이로 줄어들었다. 돌봄이 필요한 남성들이 확연히 많아지고 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병들고 노쇠한 아버지를 요양 시설로 보내면서 집까지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병이 낫더라도 돌아갈 집이 없어 요양 시설에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흔히 본다.

50대 이상 중년, 노년 남성들이여. 요리를 배우자. 음식 만들어 먹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시대가 되었다.



심보이야기 25

법선 정사

7식의 존재 증명하기 <2>

말나식의 본질적인 성질인 사랑(思量)은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도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전의(轉依, 질적 전환)를 득하지 못한 상태, 즉 번뇌에 물들어 있는 상태의 염오식(染汚識)으로서의 말나식에서 사랑은 오염된 자아의식 즉 자기중심주의로 나타나고, 반면 전의를 득한 상태 즉 번뇌가 정화된 상태의 청정식(淸淨識)으로서의 말나식에서 사랑은 나와 남을 평

식이 없으면 그 사랑은 없다. 제7 말나식이 따로 있어서 항상 자세하게 사랑하니 바로 의라 이름한다.

네 번째로 이경차별증(二定差別證)으로 성자가 들어가는 멸진정과 외도가 들어가는 무상정에는 말나식이 있어야만 한다. 경전에서 ‘무상정(無想定)’과 ‘멸진정(滅盡定)’을 말씀하신다.

만약 염오의(染汚意)가 없다면, 그 두 가지 정(定)은 차별이 없다. 그

태어난다.

이 천에서는 전6식과 심소가 모두 사라지지만 심소 가운데 상(想)이 사라짐을 으뜸으로 하니,

무상천이라 이름한다. 이 경전에서 중요한 용어는 ‘평생 동안 심, 심소가 사라지다’는 말이다.

만약 제7식이 없다면 무상천의 유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 이 제7식이 없으면 무상천에는 전6식과 그와 상응하는 모든 심

말나식 존재, 두 가지 교설과 6가지 이론으로 증명 멸진정은 심상을 없애고 적정하기 위하여 닦는 선정

등하게 보는 평등심(平等心)과 대자비심(大慈悲心)으로 나타난다.

말나식의 존재는 두 가지 교설과 6가지 이론으로 증명된다(二教六理).

여섯 가지 이론에서 두 번째 증명은 육이연증(六二緣證)으로 전 5식은 전 5근을 소의로 삼고 전 5경을 소연(所緣)으로 삼듯이 제6식도 소의처인 의근(意根) 즉 말나식이 없으면 안 된다.

경전에서 ‘안과 색이 연이 되어 안식을 생기게 한다. 이는 불교의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인 십팔계와 관련된다. 제7식도 의식이라 하고 제6식도 의식이라 이름한다. 그런데 제7식의 의식은 ‘의(意)가 곧 식’이라는 뜻이었고, 제6식의 의식은 ‘의(意)의 식인 것처럼, 제6식의 의식은 ‘의(근)의 의식’이다. 이때 의(근)이 바로 제7식이다.

세 번째 증명인 의명증(意明證)은 말나 즉 의라는 이름은 항상 사랑이므로 말나식이 상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전에서 ‘사랑을 의(意)라 이름한다’고 말씀하신다. 만약 이 제7

두 가지 정에는 모두 6식과 그 심소가 사라졌다. 6식과 그 심소가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다. 따라서 염오의가 있어서, 멸진정에는 있고 무상정에는 없다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정은 차별이 있게 된다.

유식사상에서는 두 가지 정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 가지 무심정(無心定)은 의식의 활동이 정지되는 선정으로서 무상정과 멸진정을 말한다. 무상정은 외도 수행자도 도달할 수 있지만, 멸진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뛰어난 선정이다. 무상정에서는 아직 말나식이 작용하고, 멸진정에서는 소멸된다. 멸진정은 멸수상정이라고도 하며, 성자가 모든 심상을 없애고 적정하기를 위하여 닦는 선정이다.

다섯째 무상유염증(無想有染證)으로 무상정을 닦아서 얻은 무상천에는 제 6의식이 없지만 아집이 있기 때문에 말나식이 있어야 한다.

경전에서 ‘무상천(無想天)의 유정은 평생 동안 심, 심소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신다.

무상정을 닦아 전6식을 싫어하는 힘에 의해 광과천(廣果天) 가운데

소가 사라졌으니 무상천의 유정은 염오가 없다. 전6식이 일어나야 염오가 있든지 없든지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무상천에서는 아집도 평생 당연히 없게 된다. 아집이 없다면 열반과 다름이 없다. 열반과 다름이 없다면, 성현들이 무상천의 유정을 굳이 해결같이 꾸짖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다.

여섯째 유정아불성증(有情我不成證), 범부가 보시 등의 선행을 베풀어도 무루(無漏)가 되지 않고, 아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는 말나식이 있기 때문이다.

범부는 그 마음이 선이거나 악으로 오염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기심일 때나 항상 나를 집착한다. 그런데 제7식이 없으면 아집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제7식이 없다면, 전6식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아집은 없게 되고 전6식이 선성일 때도 아집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제7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범부는 선, 악, 무기의 마음일 때 비록 제6식이 밖으로 모든 업을 일으키지만 제7식이 안으로 항상 아를 집착한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차시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實地)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 편 중>

3.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

지난 호에는 불교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행이란 자신의 내면적 성숙과 함께 이타행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행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실천 가운데 육바라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육바라밀은 십선을 포함해서 불교의 모든 수행실천을 아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정해 삼학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육바라밀 가운데 제일의 실천덕목입니다. 왜 제일의 실천덕목인가. 모든 수행에서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입니다. 남을 위해 보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발심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보살행입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는 불공은 소아적인 것이지만, 남을 생각하고 베푸는 마음은 대아적인 것으로 자리아타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불공하는 사람의 제일의 마음 자세입니다.

베푸는 실천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크게 키우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보시를 통해서 나의 인색함과 탐욕심을 버리는 수행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기도와 불공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에서 나의 소원성취가 있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이라고 하면, 보시행을 통해서 내가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 언덕은 작게는 나의 소원성취요, 크게는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언덕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보시행을 통해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참다운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을 돕고 자비

의 정을 베푸는 가운데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 삶이 더욱 넉넉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함경』에서도 ‘보시는 커다란 공덕이 있는 종교적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행이 우리에게 전하는 더 큰 의미는 ‘공덕을 바라고 남에게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할지니 소위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 주어야 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준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보시는 부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아상(我相)도 들어가는 안 됩니다. 보시란 즐겁고 환희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깨끗하게 물질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아낌없이 내보내는 것이고, 큰 서원이 있을 때는 부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와 고마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일 뿐 절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머무는 바 없이 베풀다면, 그 뜻은 더욱 깊고 공덕 또한 무량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를 말할 때는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보시하는 사람이 깨끗하고, 보시 받는 사람도 깨끗하고, 보시하는 물건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에 청정(淸淨)이 중요한 코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 묻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뭔가 바라고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주상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를 행할 때는 ‘다섯 가지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섯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면 진정한 보시바라밀이 됩니다. 즉 보시를 행함으로써 내가 부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

“
보시는
부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아상도 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시를 통해 내 저 언덕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여 할까요?

그 다섯 가지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베푸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보시는 베푸는 마음이 항상 가득해서

넷째, 항상 회향(廻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공이나 기도를 마칠 때나 좋은 날에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실제로 보시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린 기도나 불공의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도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섯째, 보시를 행할 때 더 좋은 방법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행하는 보시가 아니라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보시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이러한 보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비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절에서 불공

보시는 육바라밀 중 상구보리 하화중생 제일의 덕목 인색함과 탐욕심을 버리는 자리아타의 대아적 실천

실제로 보시행 그자체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시(財施), 법시(法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재시(無財施)로도 얼마든지 보시행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소, 따뜻한 말, 칭찬, 자리아양보, 배려, 이해)

둘째, 베푸는 마음과 함께 거기에는 항상 따뜻한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비 없는 보시는 일시적인 전시나, 아상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보시행과 함께 발원(發願)을 세워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마음까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부처님께 단 돈 100원이라도 보시하는 마음이 깊은 신심이요, 커다란 발원입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또 병들어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작은 보탬을 주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것들이 모두 보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보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전하는 보시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보시는 대부분 기부나 선행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보시는 그 공덕이 무량하지 않고 육신의 인연이 다하면 함께 끝나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보시는 일체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는 것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시입니다. 이것은 법을 전하는 자도 법을 듣는 자도 모두 큰 공덕을 얻고 지혜를 얻어 깨닫는 공부입니다. 법보시행은 불교의 훌륭한 공부입니다.

는 자의 탐진치를 없애니, 물질이 없어도 겨자씨만 한 깨달음만 있어도 가능한 것이 법보시’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보시란 무엇이든 간에 자비심으로 베푸는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베쁨으로써, 베푸는 자신이 흐뭇하고, 받는 상대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 그야말로 자리아타의 행이 바로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실천이자 멋진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나의 실천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보시행을 꾸준히 하게, 그리고 묵묵히 실천하고, 용맹정진하시기를 서원합니다.

기도하고 불공하는 가운데 참 실천을 하셔서, 가정마다 재난소멸은 물론이고, 소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래서 경전에서 ‘물질보시는 보시하는 자에게는 복덕이 있으나 보시받는 사람은 베풀을 받기만 하니 복이 없고 내생에 거지로 태어나기 쉽다. 그러나 법보시는 법을 전하는 자의 업장을 소멸하고 법을 받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불교총지종 50년, 종단 발전 좌담회

인선 정사(통리원장), 우인 정사(종의회의장), 법경 정사(사감원장), 원당 정사(총무부장)

창종 50년을 맞아 종단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에 관한 토론이 ‘창종 50년, 종단 발전 좌담회’의 제하로 지난 9월 28일 통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에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종의회 의장 우인 정사, 사감원장 법경 정사, 총무부장 원당 정사 등이 참석해 평가와 발전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냈다. 간담회 참석 스승들은 진호국가불사를 위한 상·하반기 49일 불공과 매월 월초불공 등 스승과 교도가 함께 삼밀육행을 실천하는 수행정진이 종단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놴다. 창종 50년 기념법회를 맞아 좌담 내용을 소개한다.



인선 정사(통리원장)

1. 총지종의 오늘이 있기까지 기억해야 할 사상과 전통, 그리고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경 정사 우리 종단의 가장 훌륭한 사상과 전통은 평등사상입니다. 승속동수, 즉 재가승과 재가신도가 같이 염속하고 같이 수행한다는 점이 일반 출가종단과는 다르죠. 부처님의 본래 사상이 평등사상인데 이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단의 50년 발전에 원동력이 된 부분은 철저한 계행과 수행입니다. 기도 정진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 어떤 불교종단보다도 뛰어납니다. 우리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종단이 없거든요. 자성일 법회, 월초불공, 49일 불공 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리 종단이 지탱해온 힘이자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선 정사 삼밀과 육행 실천을 위해 서로가 배우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면서 완벽한 수행자로 나아가기 위해 스승은 물론이고 교도들도 정말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종단이 있기까지 개인보다는 종단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앞세우고 실천해온 선종후사의 정신도 훌륭한 전통입니다.

우인 정사 현교 일색인 우리나라에서 종조님께서 그 어려운 밀교를 전파하신 것이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기존의 불교보다 완전히 특색 있고 매력 있는 종단을 만든 데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종조님을 비롯한 1세대 스승님들이 피땀으로 만든 종단입니다. 1세대의 애종심이 종단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생활불교 종단을 만들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요. 현교가 산중불교에서 도심으로 내려온 것이 근래 10년, 20년 되겠습니다만, 50년을 내다보고 생활불교종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한국불교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세정화와 즉신성불, 그리고 호국불교를 제창했다는 것도 맥을 이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
종교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
”

원당 정사 생활불교, 승속동수가 우리 종단의 사상적 토대이자 힘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언제 어느 때나 현실 속에서 닦을 수 있으니 현대수행에 가장 잘 맞는 수행법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식재법, 증익법, 경애법의 사중수법은 내 업은 내가 닦고 내가 지어서 받는다는 생각으로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2. 50년의 종단 사업 가운데 계승되어야 할 사업과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당 정사 불교종단에서 계승해야 할 핵심 사업이라면 교화사업 외에 무엇이 있겠

습니까? 중심은 교화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서원당은 내 마음을 닦고, 내 업을 닦는 수행의 도량입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써야 하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바른 밀법을 전하는 교화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인선 정사 교화사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요. 외적으로는 복지사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종교의 역할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므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복지사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교도들의 회사금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중생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지론입니다. 이 시대가 종교계에 요구하는 것도 복지사업입니다. 시주의 사회 환원을 위해 자체적인 운영기반을 다져온 수익사업도 계속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법경 정사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영상포교, 방송포교입니다. 불교방송과 BTN이 설립된 이후 라디오와 TV가 총지종을 홍보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한국불교에 출가승 종단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일반 불자들이 방송을 통해 재가종단, 재가승이 있다는 것

을 알게 됐습니다. 방송을 통해 종단 홍보와 포교에 큰 성과를 거뒀기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은 종단을 알리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부처님법을 전하고 불자들을 제도하는 데로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3. 특히 교화발전의 속도와 결속력은 여타 어느 불교종단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대단했는데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원당 정사 오늘날과 같은 종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초기 1대 스승님



우인 정사(종의회의장)

들의 힘이 컸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용맹정진으로 종단을 키우셨어요. 교도분들의 역할도 정말 지대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도들은 일당백이라고 하거든요. 생활

승속동수는 종단의 훌륭한 전통이자 부처님 평등사상의 실천 현세정화·즉신성불·호국불교는 맥을 이어야 할 중요한 가르침

과 총지종,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종조님께서 만들어놓으신 수행제도가 습이 되고 생활이 되어 열심히 닦는 교도들의 수행정진력이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인 정사 우리는 일대일로 대화를 합니다. 우리 스승님들의 정위치는 서원당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서원당에 있고 교도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대화를 합니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고 진리와 수행에 대해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선 정사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늘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는 부분이 종단 발전에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물론이고 교도들도 선종후사의 정신을 확고히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개인의 일보다는 종단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교화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4. 그렇다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종단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법경 정사 특별히 종단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부족했던 부분은 많지요. 우선 선배 스승 때에 비하면 위계라든가 기강이 조금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많이 약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종교는 교화가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교화방편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여력이 없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 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교화방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인 정사 우리 종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장애라면 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50년이나 됐고, 이제는 종단협회 회장 종단이라는 지도적인 위치에서 있음에도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낯설고 이질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종단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매스컴을 통해 종단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행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종단 수행법을 천편일률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처음 입문한 사람은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행기간과 수준별로 수행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선 정사 한국불교가 2,600여 년 동안 내려오면서 스님과 절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지요. 일반인의 선입견을 과연 어떻게 정통밀교종단으로서, 재가종단으로서 알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가종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내세우고 사회복지 등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함으로써 종단의 존

대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기준 가운데 결격사유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교도로서의 연한이나 가족과 관련한 조항도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훌륭한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이런 조항들을 완화하고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원당 정사 우리 종단은 너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화발전을 위해서 스승마다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지지해주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스승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허용해주고 다양한 시도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법경 정사 일사분란한 중앙집권식 운영은 성과가 크지만 자율권과 재량권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성과 창의성이 없으면 조직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구 중심으로 바뀌어야 사원도 지역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사원을 정사, 전수 부부가 함께 맡게 되어 있는데 이 원칙도 이제는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살님을 교화하는 데 있어 전수님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재난소멸, 소원성취에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사상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수 중심의, 혹은 반드시 전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원운영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사원이 한꺼번에 다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큰 사원부터 시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안 바뀌고 틀이 안 바뀌고 제도가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교도들 그대로, 스승들 그대로, 50년 해오던 그대로 간다면 백 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인 정사 변화와 혁신에 대한 답을 찾기에 앞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잘 되는 종단은 어떻게 교화를 하는가? 활발하게 포교가 이루어지는 곳들을 연구해서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교화가 잘 되는 단체의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활불교라고 하는 강점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으로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인선 정사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불공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수행하고 자신을 닦는다는 면에서 중요하고 종단 발전에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줄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바쁜 시대에 교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불사법요 같은 경우, 작년에 시간을 단축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49년 만에 바꾼 겁니다. 일 년을 시행해보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차분히

5. 종단의 제도와 문화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거나 과감하게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선 정사 저는 현재 승직자의 자격기준에

종단 발전 원동력, 삼밀육행 실천하는 수행정진에 있었다

밭았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갈등이 따릅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를 텐데 그러한 이견을 갈등 없이 화합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도 구성원 간에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구체화해 나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6. 미래세대 교화와 종단 발전을 위해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요?

인선 정사 첫째는 인재양성 아니겠습니까? 인재양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장기적인

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도 교화사업이 잘 되어야 가능하지요.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요양원과 요양병원, 독락전, 수목장, 납골당 등 이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이 우리 종단의 꿈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교화사업이 잘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경 정사 교화방편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세대,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대한 연구도 역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처럼 자성 학교 중심의 포교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진학과 진로를 지

“
열악한 시절 종조님과
1세대 스승님들의
피땀으로 만든 종단

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단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급선무입니다. 스승의 경우 현재 자녀 2인에 대해 대학 학자금까지

론이 내려지더군요. 승직자들이 수행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부 모습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렇게 바르고 건강한 종단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경 정사 종단의 정체성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입니다. 옴마니반메흠을 본존으로 모시고 육자진언을 수행방법으로 삼고 준제진언법으로 교화하는 이 부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옴마니반메흠 수행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되지는 못했습니다. 옴마니반메흠 수행을 통해 내증하거

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종단의 구성원이 가져야 할 생각은 선종후사라는 점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종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절실한 것 같습니다. 백마디 천마디 말보다도 종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종단을 위하는 길이고 그럴 때 종단은 앞으로 백년 이백년 이어질 것입니다.

우인 정사 저는 총지종 스승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으로서 내면의 덕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내면의 덕을 닦는 것이

미래세대 포교를 위한 깊은 논의와 전담 기구도 반드시 필요 개인보다 종단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온 선종후사 정신이어야



법경 정사(사감원장)

안목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종단에서는 종립 동해중학교 불교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불연을 심어주고 있고 교무와 승직자, 승직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니까 중생구제를 위한 실천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인 정사 스승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어야 종단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미래에 스승이 될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도제 양성비도 많이 적립되어 있으니 규정을 완화하더라도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

원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도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투자할 시간과 겨를이 없었죠. 지금부터 준비해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원당 정사 핵심 키워드는 종단 발전이고,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화하느냐가 관건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것이 신규 스승의 영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대가 물질시대가 되고 풍족하게 살다보니 다들 너무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수행적인 측면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건을 완화해도 스승이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닥친 당면 과제입니다.

7. 종단의 정체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와 종단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겠습니까?

인선 정사 인재를 영입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안이라면 처우개선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인재를 데려오려면 그에 맞게 대우를 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희 때는 사명감과 신심으로 헤쳐 왔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승직자 뿐 아니라 일반 종무원과 연구원



원당 정사(총무부장)

지원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등 다른 걱정이 없어야 교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겠지요. 제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해도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단의 정체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독락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편을 마련했지만 결국 불상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결

나 내면의 변화를 체득하는 수행방법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연구할 틈도 없었죠. 이제 해야 됩니다. 신밀, 구밀, 의밀이 일체가 되는 옴마니반메흠 수행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와 교육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인재양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교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직자를 보좌할 수 있는 교도를 발굴하는 것도 인재양상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모범교도, 예비스승, 명예스승 제도가 있었듯이 실질적으로 사원의 교화와 살림을 관리하고 보좌할 수 있는 교도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단에서는 승직자와 종무원을 오랫동안 지원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눈을 좀 돌려야 합니다. 동국대 등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문화계, 방송언론계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자체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한다면 종단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높이고 외연을 넓힐 수 있으리라 봅니다.

8. 마지막으로 스승과 교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인선 정사 통리원장으로서 아무래도 당부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합니다.

법경 정사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화든 공부든 수행이든 하는 사람이 즐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당 정사 우리 종단은 전혀 새롭고 색다른 종단입니다. 기존 기독교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기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가든 출가든 다 같은 부처님 제자라는 자긍심과 부처님 법을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합니다. 불심으로, 한마음으로 대동단결해서 나간다면 우리 종단은 다시 한 번 커다란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좌담회 정리 = BBS 작가 윤금선

“
종단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늘려
외연을 넓히는데
관심 기울어야

”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티벳불교 비구니의 지위를 확립한 최끼된마

티벳을 이끄는 달라이라마제도는 사바세계에 고통받는 중생이 단 한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결코 안락한 열반을 택하지 않겠다는 대승불교의 보현행원(普賢行願)에서 비롯되었다. 보현행원은 여러 생을 통해 인간계를 선택해 전생(轉生)할 수 있는 담보가 있어야 가능해진다. 번뇌에 의해 삼계를 전전하는 중생과 달리 무상유가판뜨라의 수행자들은 12지연기의 관법을 의궤화한 생기차제와 구경차제를 수련하고, 현생을 마치고 임적하면 중음을 거쳐 인간계에 새로이 전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티벳을 이끄는 종교지도자들은 원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전생한 최고의 밀교승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도 아쇼카왕의 비원은 달라이라마 제도에 의해 티벳에서 불교의 이상사회의 실현

된 시절 최끼된마는 즐거운 시절을 보냈지만 잔병치레를 겪었다. 명석한 머리로 일찍 어린 시절의 교육을 마쳤고 불교과목으로서 산스끄리뜨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이러한 자질은 그녀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불교수행에 전념하게 될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1438년 최끼된마는 17세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와 어머니는 구계왕조의 가문과 혼인하길 바랬으나 왕실 궁정의 결정에 의해 셀갈의 라또호 왕가와 결혼하는 정략결혼에 희생되었다. 라또호 왕가는 당시 티벳의 토속신앙인 빈교를 신앙하고 있었으나 아버지로부터 배운 불심이 깊었던 최끼된마는 관여치 않고 빈교의 사제들을 두렵게 했다. 19세때는 딸을 낳았을 때 왕가는 딸에게 빈교를 가르치길 원했지만 최끼된마는 불교교육을 시키기를 권하여 받아

지만 스승은 감수하였다. 최끼된마의 전기에는 그녀의 동학인 뽅치메둡빠에 의해 기록되었고, 여기에는 최끼된마가 수학한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최끼된마는 티벳 불교사에 여성출가자의 새로운 전통과 범패, 경전의 출판, 교육사업의 확대 등은 스승인 보동최끝남겔과 최끼된마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보동최끝남겔은 밀교에 대해 탁월한 견해가 있었고, 최끼된마에게 티벳에 밀교수행자로서 새로운 전통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인도불교의 전통에서 ‘금강무(金剛舞)’라고 하는 무상유가판뜨라의 의식적 춤이 있었는데 티벳불교에 전해졌지만 랑달마왕의 폐불 이후 그 전승이 희박해졌다. 최끼된마는 금강무를 발굴해 비구니들에게 새로이 가르쳤다. 복장과 가면을 조성하고, 선행자인 뽅체첸의 인도로 16비

최끼된마는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목각경판의 조성을 시도해 이후 티벳전역에 퍼지게 하였다. 또한 그녀는 관개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수로를 새로이 조성해 경작지역을 넓힘으로써 불교사원의 수도와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후 최끼된마는 님마빠의 스승 탕통겔뽀(1361-1464)를 만났다. 밀교의 주술과 예언에 탁월했던 스승은 최끼된마로 하여금 요기니로서 내면적 유가에 전념하는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 최끼된마는 왕가의 인물로서 가정과 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티벳불교의 사회, 문화적 역할을 수행해 많은 기여를 했지만, 최끼된마의 말년은 수행에 전념하는 밀교수행자의 삶에 모이지고 있었다. 티벳에는 최끼된마 이전 마척랍뽀(ma cig labs sgron, 1055-1149)이라는 유명한 여성 요기니가 있었다. 이후 티벳에 여성수행자로서 법맥은 단절되었다가 최끼된마로 인해 밀교 여성수행자의 전통도 부활되었다. 최끼된마는 인간으로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였고, 오로지 밀교본존과 요기니

로서 궁극적 해탈의 성취만이 그녀의 목표가 되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그녀의 풀어헤친 머리와 외떨어진 모습에 놀랐지만 그녀의 경지는 모든 것을 초탈한 요기니로서 자유로운 삶이었다. 전기에는 말년의 최끼된마가 거주 지역을 벗어나 시가체를 비롯해 여행한 지역과 방문한 인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최끼된마는 라사를 방문하여 당시 종카빠(Tsong kha pa, 1357-1414)의 명성을 새로이 전해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최끼된마는 1455년 즈암 짜리짜공에서 세수 겨우 35세로 입적하였다. 다른 기록에는 1467년이라 전한다. 다비후 최끼된마의 머리뼈가 남아있는데 탕통겔뽀는 짜리탕뽀의 성지에 특별한 두골사리가 출현할 것이라는 예언을 오래전에 했었다고 한다. 여성수행자이기 이전에 한 어머니로서 딸을 잃는 고통은 그 무엇에도 비하지 못한다. 최끼된마가 일으킨 불사나 티벳의 사회자원을 개발한 활동은 무수히 많다. 너무 나 재주가 많고 시대를 넘어 기발하였지만 머리를 풀어헤친 광기는 당대의 천재들이 보이는 흔한 모습이었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결혼과 딸을 잃은 슬픔의 도피로서 밀교 수행자가 된 것은 그녀로서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무엇보다 모정의 단절이 그녀를 단명케 한 것이 아닐까 인간의 편에 서서 판단해본다.

딸을 잃은 슬픔으로 불교 심취 후 밀교 수행 시작
‘금강무’ 전통재현으로 티벳불교 범패 부흥기 이뤄

으로 새로이 태어났다. 티벳의 안정된 불교사회는 티벳인들이 밀교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티벳에는 수많은 성취자들이 출현하였다. 티벳에는 여성성취자들도 적지않게 존재하는데 인도불교의 여성성불에 대한 확고한 교단의 기준은 밀교의 탄생과 더불어 마련되었다.

초대 달라이라마 재세시 같은 시대를 공유했던 여성성취자로 유명한 분은 최끼된마(Chökyi Drönma, 1422-1455)이다. 옛적 티벳의 망울구탕지방에서 알룽왕조의 왕인 티하왕겔첸왕(1404-1464)은 왕비 도데(mdo sde) 사이에서 아들을 기다렸지만 오직 공주만을 얻었을 뿐이다. 알룽의 왕사(王師)는 공주로 하여금 공주로서 왕가를 계승할 준비를 했지만 몇 년 후 남부 봉족출신의 두 번째 비(妃)가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최끼된마의 운명은 크게 바뀌게 된다. 어

들여졌다. 그러나 최끼된마가 온천에 가 있는 동안 불행하게 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한 심정적 변화 때문에 최끼된마는 양 왕가에 불교수행을 위해 출가할 것을 선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때부터 최끼된마는 셀갈에 소재한 포롱뽅모최딩사원에서 경전을 읽으며 불교에 대해 심취하였다. 마침내 출가할 것을 굳힌 최끼된마는 한밤중에 성을 넘어 탈출했으나 도중에 붙잡혔고, 시부모 왕가는 산발과 피떡이 된 그녀를 보고 마침내 굴복해 그녀의 불교수행을 허락하였다. 남편도 허락하여 새로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녀는 포롱뽅모최딩사원에서 스승이 된 보동최끝남겔의 지도를 받았고, 출가한 후 범명을 ‘최끼된마’로 받았다. 당시 티벳사회에는 비구니 출가의 전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최끼된마의 출가로 큰 비난을 받았

구니에게 금강무의 전통을 재현했다. 전기에는 소작판뜨라를 비롯해 4부판드라와 관련된 모든 의식의 가무를 익혔다고 한다. 특히 가면을 쓰고 대중들 앞에서 의식적 춤을 선보인 것으로 보아 지역에 산실되었던 티벳불교 범패의 부흥이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무상유가판뜨라의 금강무는 유가의 경지를 춤을 통해 몰입하는 출세간적 수행의 의미가 컸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의 가무자원으로서 현재의 범패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이다.

최끼된마의 다른 인생의 전환점은 스승인 보동최끝남겔의 입적이었다. 1451년 스승은 자신의 열반을 예고하였다. 다비식에 의해 사리를 추출했다. 그녀는 깊이 상심하고 외따로 떨어진 곳에 기거하면서 미친 자처럼 살았다. 그러나 마음을 추스르고 다음해 스승의 전기를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최끼된마

화음사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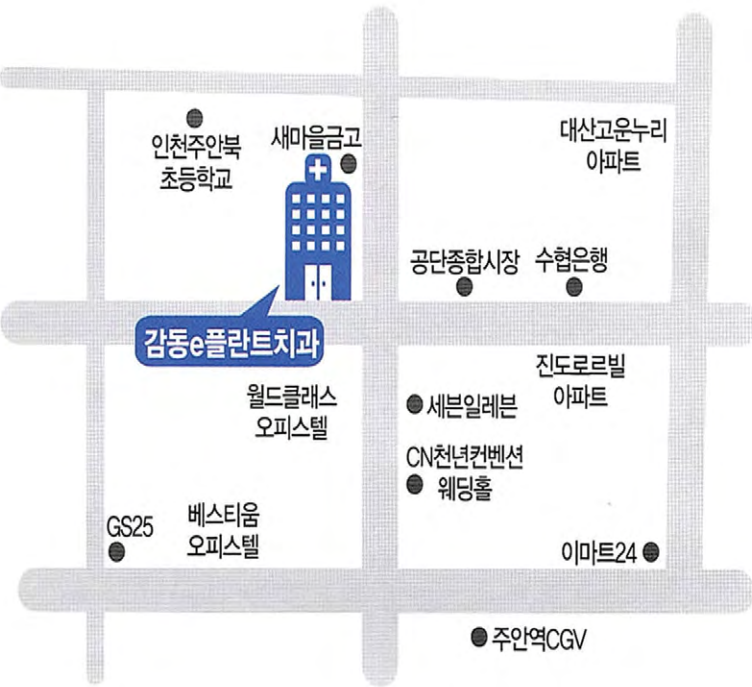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유타라판뜨라의 4지(四支)의 일반적인 성취법인 4종의 금강법은 생기차제의 기반이 되는 성취법이다. 네 종의 금강법이란 공성보리(空性菩提, śūnyatābodhi), 종자집집(種子攝集, bījaśamḥrta), 형상출생(形像出生, bimḥaṇisṭatti), 문자포치(文字布置, akṣaranyāsa)이다.

첫째 공성보리란 일체의 현상계는 자성공성(自性空性)이며, 보리즉절대(菩提即絕對)라는 요가 관법의 기본 이념을 제시한다.

그 이치를 깨닫기 위하여 공성보리를 종자에 집약하고(종자집집), 다음으로 제존을 출생시켜 원만케 하여(형상출생), 행자의 신체에 문자를 포치(문자포치)하는 입아아입관을 실천한다. 이 네 가지 금강법은 무상유가의 여러 판뜨라 및 성취법에서 종종 발견되는 관법이지만, 그 기본 패턴으로는 행판뜨라, 유가판뜨라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비밀집회판뜨라」에 따라 작성된 성취법 중 성자류(聖慈流)의 생기차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집차제(略集次第)」(Pindikrtasādhana)가 있다. 다양한 무상유가계 성취법 안에, 여기서는 한 예로 「약집차제」와 부(父)판뜨라계인 무상유가밀교의 입아아입관의 한 형태를 들 수 있다.

「약집차제」에는 먼저 수법의 장소 규정이 있고 이어 분노존에 의한 결계가 이어진다. 그것은 외면적인 사작법(事作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가의 관법을 가지고 바꾼다. 지수화풍의 사륜(四輪)이 각각의 종자에서 생겨나고, 그곳에 누각궁전을 만들어 32존을 관상하고, 그것들을 자신에게 수렴하고, 또 우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행자는 자기와 본성공(本性空)에 있는 청정광명(淸淨光明, prabh-

āsvara)의 본존과 불이일체(不二一體)를, ‘나는 공지금강(空智金剛)을 자성으로 삼는다’거나 ‘나는 금강계를 자성으로 삼는다’거나 ‘나는 일체여래의 신어심금강(身語心金剛)을 자성으로 삼는다’는 진언을 외면서 체득한다.

이어서 32존의 출생을 관상하게 된다. 이들 공지금강, 금강계, 신어심금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절대는 때로 대지금강(大持金剛, mahāvajradhara), 금강살타(金剛薩埵, vajrasattva), 본초존(本初尊, adhinātha)이라고도 불린다.

행자는 이 대지금강과의 입아아입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출생한 32존과도 융합동화(融合同化)한다. 32존은 5불, 4명비, 5금강녀, 8보살, 십분노존을 말하며, 이들은 5온(蘊), 4대(大), 5경(境), 6근(根) 등을 상징화한 것이므로 32존은 그

고 법신에 귀일하게 된다.

무상유가판뜨라 성취법으로는 이밖에 모(母)판뜨라계 성전, 나아가 칼라차크라판뜨라 성취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반드시 「비밀집회판뜨라」의 성자류 양차제가 그것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 소작·행·유가·무상유가 각각을 대표하는 성전(聖典) 혹은 성취법에서 각판뜨라의 입아아입관에는 각각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후세 주석가들은 이들 성격의 다른 성취법을 자기 연관시켜 일계열화하는 설도 있다. 삼종본존(三種本尊), 사지염송(四支念誦),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 4종의 금강법 등을 상호 배치하여 자기 관련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관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한 계열

입아아입관의 밀교 행법의 근거는 신비사상 오차제, 호흡, 풍, 공, 심, 현명 등으로 관법

대로 현상세계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행자는 이 입아아입관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현상세계의 일체가 모두 절대, 대지금강(大持金剛)과 다름없음을 관상하게 된다.

한편 성자류의 구경차제로서 「오차제(五次第)」가 있다. 생기차제가 절대적인 측면에서의 생기, 만다라의 전개를 주축으로 한 입아입관을 설파하는데, 구경차제는 행자가 법신으로의 융합동화 과정을 주제로 한다.

「오차제」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위해 마련된 5단계 행법차제이기에, 행자의 호흡, 풍(風)을 제어하는 염송으로 시작하여 공(空), 심(心), 현명(顯明) 등의 상징을 통해 관법을 추진하여, 자신을 청정광명으로 융합하고 일체는 상대를 떠난 불이쌍입(不二雙入, yuganaddha)으로 보

속의 발전 형태가 아니라 자기 기반을 달리하고 성격도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밀교의 수법 내에서의 입아아입관은 금강계차제와 대장차제의 어느 것이든 상당히 정비되어 있음과 동시에 유형화되어 있다. 그런데 인도 밀교의 입아아입관은 이상과 같이 경전, 의궤, 유파의 차이에 따라 반드시 똑같지는 않다. 수법차제이기에 매우 개성적이며, 각각 발생과 전개 과정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소우주(행자)와 대우주(본존)의 합일, 일체화, 그것들의 내면적 동일성을 자각한다는 점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 없다. 이러한 입아아입관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인도 밀교의 행법은 실로 신비사상을 그 근거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깨진 물동이가 주는 교훈



시인
前동해중 교장 탁상달

인도의 물 길는 기구 중에 긴 막대기 양 끝에다 물동이를 매달아 어깨에 매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양반덕에서 일하는 하인의 물길는 기구의 물동이에는 우물가에 서부터 집에 도착할 때쯤에 한쪽 물동이는 온전하게 물이 다 차 있지만, 금이 간 다른 한쪽 물동이에는 물이 절반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니다.

이런 연유로 수년 동안이나 물 길는 하인은 언제나 한 동이 반 정도밖에 물을 길어 오지 못했습니다.

이를 깨달은 깨진 물동이는 자기가 절반 밖에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금이 간 물동이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물 길는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당신께 용서를 빕니다.”

“왜? 무슨 용서지? 도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말이지?”

라고 물 길는 하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양동이 틈새로 물이 새버려서 언제나 물을 절반밖에 못 가져오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결함 때문에 당신의 힘든 노력이 허사가 되어 버린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 미안해질 수밖에요?”라고 금이 간 물동이가 대답하였습니다.

물 길는 하인은 깨진 물동이를 불쌍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동이야? 넌 물을 길어서 주인집으로 돌아오는 오는 길에 길가에 핀 아름답고 예쁜 꽃을 본 적이 있지? 우리가 왔던 그 길에서도, 네가 걸려 있는 벽 쪽 옆길에도 향기 나는 꽃들이 많이 피어 있지? 나는 너의 결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네가 물을 흘리는 쪽 길가에다 예쁜 꽃씨를 심었다. 매일 우리가 우물로부터 물을 길어서 주인집으로 가는 동안 네가 그 꽃에다 열심히 물을 준 셈이 되었지.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그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주인의 테이블 위에다 장식했으니, 결국

주인집이 밝고 아름다운 집이 된 것은 다네 덕분이 아니겠니?”

우리는 이 물 길어 나르는 하인의 삶의 가치관과 생활 철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저마다 많은 결점을 가지고 삽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깨진 물동이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수나 오류로는 아무 보잘 것도 없고 의미 없으며 존재조차도 없는 것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각각의 하찮은 미물들도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결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작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저마다 한두 가지 결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지닌 그 결함이 때로는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행복을 가져다주기도 하며 그 결함조차도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인생의 삶을 흥미롭게 하거나 또 어떨 때는 큰 보상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갖 천태만상(千態萬象)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서로 결함을 공유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서로 결점을 공유하고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함과 결함을 알고 칭찬과 격려, 존중과 배려, 나눔과 감사, 협력과 소통의 인연이 함께하는 12월을 기 대해 봅니니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0월 21일 ~ 11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건화사	법상	10/25	20,000	덕화사	법상인	10/27	20,000	실보사	이순옥	11/12	10,000	초록어린이집	이지희	10/25	50,000	
관성사	인선	10/25	20,000		이진승	11/7	10,000		박성호	11/12	10,000		강해란	10/25	10,000	
	황성녀	10/28	10,000		법선	10/25	10,000		보현	10/25	10,000		최해선	10/25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10/25	20,000	동해사	김진화	11/10	10,000	실지사	덕광	10/25	10,000	총지사	김정환	11/8	10,000	
	상지화	10/25	10,000		송인근	11/18	10,000		정혜정	10/31	10,000		백귀임	11/10	10,000	
	수증원	10/25	10,000		밀인사	김재영	10/20		10,000	연화법	10/31		10,000	최영아	11/15	10,000
	밀공정	10/25	10,000	정우석		10/26	10,000		관득	11/7	10,000		홍수민	11/16	10,000	
	총지화	10/25	10,000	록경		10/26	10,000		이도현	11/7	10,000		신성희	11/16	10,000	
	법수원	10/25	10,000	법수연		10/26	10,000		이서현	11/7	10,000		신명준	11/16	10,000	
	선도원	10/25	10,000	법천사	정정희	10/29	5,000	유승우	11/7	10,000	신현태		11/16	10,000		
	법지원	10/25	10,000		장윤아	11/7	10,000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10/27	50,000		통리원	박근진	11/2	10,000
	일성혜	10/25	10,000		반아심	11/1	10,000		윤천사	반야화	11/8		30,000	포레스타7어린이집	최유정	10/25
	사홍화	10/25	10,000		법황사	박미경	10/25	10,000	의원어린이집	하재희	10/25	50,000	화음사	우인	10/27	10,000
	안주화	10/25	10,000	벽룡사	승원	10/25	10,000	구미자		11/1	10,000	보명심		10/27	10,000	
	진일심	10/25	10,000		묘원화	10/25	10,000	최자영		11/1	10,000	무명씨		10/28	10,000	
	시각화	10/25	10,000	사원명무기명	하명순	10/25	10,000	임지혜		11/1	10,000	무명씨		11/2	10,000	
	최상관	10/25	10,000		남영애	11/1	30,000	이현직	11/1	10,000	강정미	11/3		10,000		
	연등원	10/25	10,000		최영미	11/10	50,000	도우	11/9	10,000	박옥자	11/7		10,000		
	자선화	10/25	10,000		김갑선	11/19	10,000	지현	11/9	10,000	무명씨	11/7		10,000		
	단음사	혜봉	11/5	20,000	석관실버복지센터	김용기	10/25	30,000	자석사	탁상달	11/3	10,000		힐스어린이집	무명씨	11/7
해정		11/17	10,000	나석원		10/25	50,000	안한수		11/7	10,000	강승민			11/10	5,000
신말심		11/15	20,000	수인사	정순득	10/26	10,000	정각사	승효제	10/27	10,000	곽방은	11/10		50,000	
장정숙		11/15	10,000	실보사	무명씨	10/22	20,000		지인사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③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인간중 우월주의를 돌아보다

우리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 하지만 옛날 설화나 경전에는 사람이 다른 동물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동물은 비록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속에서 약육강식의 살벌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며 자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악행을 저지르고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재앙을 일으켜 지구의 여섯 번째 대멸종을 야기하였으며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당장의 돈벌이와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다.

최근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보고서에서는 지금의 기후위기가 인간에 의한 것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지

질학자들은 이미 지구가 인간에 의해 새로운 지질대로 변화하였고, 이른바 인류세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기후 운동가들은 모든 인간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사회체제가 만든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지구생명체의 일원으로서 참회하고 겸손해져야 한다. 인류에 의해 벌어진 생물대멸종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지 답을 찾아야만 한다.

만약 반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유사(有司)에게 일러바치고 말겠다.’ 보살은 대답하였다. ‘나는 곤궁에 처해 있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평등하게 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혼자 차지하려 하면 또한 너무 편협한 처사가 아니겠소?’

그러자 그 표류되었던 사람이 마침내 유사에게 일러바쳤다. 보살은 끌려갔지만 달리 호소할 데도 없으므로, 다만 3존(尊)에게 귀명하며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가 책망할 뿐이었다.

뱀이 용하게 듣는 약을 입에 물고서 문빋장을 열고 감옥으로 들어가 보살에게 말하였다.

‘이 약을 가지고 계십시오. 제가 장차 태자를 깨울 것인데 그 독이 너무 심해져서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어진 이께서 이 약을 전하여 준다면 그 병이 이내 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자가 곧 죽게 되었으므로 왕은 명하였다.

‘태자의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에는 상국(相國) 벼슬을 봉하여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겠느니라.’

보살이 뱀에게 들은 대로 약을 전하였더니 이내 나왔다.

“보살은 바로 지금의 내 몸이요, 국왕은 바로 미륵이며, 자라는 바로 아난이요, 여우는 바로 추로자(秋露子)이다. 뱀은 바로 목련(目連)이요, 표류되었던 그 사람은 바로 지금의 조달이니라.”

『보시도무극경(布施度無極經)』

보살이 또 말하였다.

‘저 사람도 건져야 하겠다.’

그러나 자라가 말하였다.

‘제발 저 사람을 건지지 마십시오. 무릇 사람의 마음이란 간사한 것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적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형세를 따르면서 좋아하다가는 또 미워하기도 하고, 흉악하게 거슬러 행동하기도 하옵니다.’

보살은 말하였다.

‘별레의 무리들조차도 모두 다 건졌는데, 이제 와서 사람 구하는 일을 포기한다는 말이나? 그렇게 하여야 어디 어질다고 하겠느냐? 나는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노라.’

마침내 풍요한 땅으로 가게 되자 자라는 물러갔고 뱀과 여우도 저마다 떠나갔다. 여우는 땅에 굴을 파고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옛사람이 묻어 놓은 자마금(紫磨金) 백근을 얻게 되었다.

여우는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이걸로 그의 은혜를 갚아야겠구나.’ 달려가서는 아뢰었다.

보살은 깊이 생각하며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이것을 가져다 중생들에게 보시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는 보살이 그 보물을 찾아다녔다.

표류되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말하였다.

‘나에게 반을 나누어 주시오.’

보살은 곧 10근을 그에게 주었는데 표류된 사람이 또 말하였다.

‘그대가 땅을 파고 개간해서 금을 훔친 것이니, 그 죄야말로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석관실버, 은하유치원과 업무협약 체결

어르신·아동 공감 텃밭 프로그램 진행



및 아동세대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세대공존의 장을 마련하고자 의견을 모은 것. 내년부터는 어르신과 아동 공동으로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작물 재배부터 수확, 활용 등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참여 어르신에게 재능 나눔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에게는 어른 공경 및 예절 학습을 배우고 도심 속 텃밭 가꾸기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세대공감 활동을 시작한다는 취지다.

나석원 센터장은 “내년부터는 어르신과 아동이 함께 텃밭을 가꾸며 도심 속 자연 체험 활동의 기회를 가지면서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공감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이 재능과 경륜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는 지난 달 8일 은하유치원(원장: 홍미라)과 ‘세대공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센터 내 옥상텃밭에서 직접 길러 수확한 작물을 유치원에 나누는 전담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나 센터장과 홍 원장이 노년

잠원햇살 원장, 여가부 장관 표창

폭력예방교육 기여, 서초구청장상도 수상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 산하기관인 서초구립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원장이 ‘2021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개인)’에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영상기념식에서 수상자 명단을 송출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2021년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 ~ 12.1.)’을 맞아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를 주제로 기념식, 시상식, 토론회, 국민참여 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은 올해 아동·여성폭력 방지에 기여한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경찰, 경찰, 교사, 공무원 등 40명의 개인과 폭력예방교육에 기여한 20개의 공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원장

공·단체 기관(유공자)에게 주어졌다.

김 원장은 온·오프라인 교육의 실시 및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자 지정 등 폭력예방교육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또 김 원장은 지난 30일 ‘2021년 모범 보육교직원’으로 선정되어 서초구청장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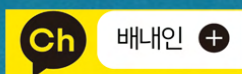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후원업체
(주)동원글로벌

Bene

배내인 물티슈

배내인이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 입히는
배 냇저고리의 의미처럼 부모 사랑을 뜻합니다

구입방법:쇼핑몰 benein.com /



카카오 배내인 추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리점 ,유통상담한영 /라벨 인쇄 판촉용 상담
대량 구매 상담 T.070-7596-2401



엠보싱 물티슈 100매입

엠보싱 적당한두께



베이직 물티슈 100매입

가성비갑 사무실용으로 최고



휴대용 손세정물티슈 30매입

알코올함유

사진으로 되돌아보는 총기 50년



1월 29일 종조 원정 대성사 탄신대재·진영봉안식



4월 14~15일 제96회 춘계강공



5월 14일 부산 덕화사 승강기 설치 불사



5월 15일 연등회에 온라인 Zoom으로 참여한 총지사



5월 30일 건축 37년만에 처음으로 새 단장을 한 본산 통리원



12월 15일 종단의 역사를 담아낸 50년사 발간

총기 50년은 종조 원정 대성사의 창종 정신을 기리고 종단 교화발전과 밀교중흥을 다짐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사부대중과 함께 여법하게 일궈낸 한해였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유행으로 마스크가 일상화 되었지만, 종단은 불퇴전의 각오로 상하반기 49불공, 춘계추계 강공회를 여법하게 마쳤으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 종조 선양 사업 등을 원만성취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뒤늦게나마 찾아온 일상의 봄은 아직 완전한 꽃을 피우진 못했지만, 다가오는 창종 50주년에는 모두가 이 국난을 극복하고 종단 백년지대계를 꽃피우는 희망과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모두에게 깃드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편집자 주

불교서적 일간베스트(11/1~30)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파카	현천 스님	선요가
2	나는 자카오 화상이 아니다	성운대사	운주사
3	길은 언제나 내게로 향해있다	인현 스님	담앤북스
4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스님	샘터
5	근본불교	이중표	불광
6	도해 화엄경	자씨	부다가야
7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스님	정토
8	성자와 범부가 함께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9	선불교의 뿌리	김성철	오타쿠
10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해피 스님	근본경전연구회

총지스캐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국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인 '옴출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심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향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법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떠박골5길 12 (호자동1가)	(063)224-4358
종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발간 설판불사 동참재자

故정암 故현덕 故불멸심 故정법수 **총령** 법공 기로스승 효강 총지화 상지화 최상관 주신제 밀공정 자선화 의강 지선행 환수원 심지장 사홍화 수증원 우승 인법계 원승 연등원 공덕성 지성 선도원 법계월 지희심 수심정 지공 지광 경원 진일심 안성 **현직스승** 법상인 원만원 정인화 인덕심 법등 승효제 시정 인선 정원심 수현 묘심해 해안정 유가해 자심관 법경 화령 법우 록경 정계월 우인 법수연 인지심 금강륜 보명심 원당 행원심 해원정 승원 묘원화 법일 자행정 서령 덕광 묘효 지현 보현 정원 덕현 법선 서강 법상 도우 해광 해봉 남해 자성 지홍 도관 **서울경인교구** 서울경인지회 **관성사** 관성사신정회 故강재옥 강경민 강경태 강규빈 강대선 강진현 김경민 김관태 김규리 김나운 김남운 김대기 김도현 김동운 김민결 김민정 김병석 김병찬 김사룡 김영원 김영현 김예진 김유나 김윙희 김인상 김종숙 김중여 김중호 김지연 김홍조 김희준 박길화 박영자 박준희 신성혜 신수용 신일생 신현영 신현정 심재훈 양인모 양종일 양지희 양창모 양태영 윤석광 윤여건 윤지윤 윤혜림 이가람 이민규 이봉재 이상철 이상희 이수정 이승은 이시우 이영미 이윤용 이정래 이중규 이주원 이주형 이하늘 이현승 이현진 이훈강 임태화 전추면 정정희 정효진 조아인 조훈 최은순 한경덕 한승수 한승헌 홍순화 **밀인사** 밀인사신정회 故김지우 故박동근 故박평자 故손숙희 故이승문 故장인석 故최경란 강필호 경복원 고은희 고지환 고진희 권혜진 김가운 김경두 김경은 김경화 김광혁 김나연 김나영 김대현 김대희 김덕자 김도경 김도희 김동연 김동운 김동을 김동현 김려원 김명진 김민주 김서연 김선용 김성만 김성식 김수원 김승현 김영관 김영애 김영태 김예곤 김용권 김용필 김원태 김이봉 김재범 김재영 김재오 김정균 김중혁 김지윤 김지현 김진곤 김진오 김채원 김태하 김태희 김현숙 김효미 김효진 김희곤 김희서 김희준 남방자 무량지 박길선 박은숙 박정은 박창달 박창명 박현숙 보덕제 보심관 복지원 서태용 성이식 성필재 송은선 신대식 신동의 신동희 심명자 엄정현 오경자 오승환 오재혁 우상혁 우승범 우영제 원행지 유귀열 유병임 유재연 유재옥 유찬결 유희정 육근우 육보경 윤병혁 윤정옥 윤지강 윤지이 윤진영 윤혜영 이정아 이승훈 이윤서 이윤지 이은영 이재원 이재진 이정아 이주영 이진아 이하정 이한성 이호준 이희원 임미화 임옥남 임은하 자성각 장경임 장용훈 장윤서 장윤아 장윤우 장재훈 장준우 정관영 정광호 정나래 정상옥 정승규 정승애 정인혁 정자영 정지수 정한성 최승연 최양희 최정곤 최주탁 최향균 홍경옥 황보순호 황보정미 **법천사** 김정숙 **벽룡사** 故이희숙 강덕심 공철봉 공현진 공희건 권나현 권재은 권형민 길경임 김경민 김명재 김민준 김법진 김선정 김영현 김재진 김종선 김주아 김태현 김효진 김희순 남경지 남익 박정은 박홍근 송태순 양재범 양재옥 양정민 양정현 양지현 오기순 오상수 오재경 오재환 오정순 오지훈 왕승훈 이동주 이정무 이정복 이중호 이진욱 이평원 이희례 임창수 전해선 정석기 정용섭 조령이 한승덕 한승혁 한우현 **시법사** 김금순 김기덕 김민선 김민성 김부직 김성련 김언주 김옥주 김응숙 김인순 김중식 김지모 김진서 김진욱 김진희 김태강 김화순 김희성 김희철 민경택 민인순 민정현 민찬홍 박재성 박재현 선우호 안귀법 안도영 엄정숙 엄경순 엄국선 엄상묵 윤혜련 윤혜신 윤혜순 윤환섭 이갑준 이경희 이덕임 이성문 이시우 이시형 이우락 이정순 이중진 이주목 장용식 전선영 조영주 진여행 최인희 최혜원 함정후 **실지사** 실지사신정회 부림회 고운 공심월 관득 김경진 김교선 김규혁 김나현 김도하 김라울 김서운 김서현 김선도 김영준 김완태 김윤경 김윤아 김윤호 김재용 김정은 김주현 김지용 김지현 김진영 김창현 김해순 김현아 김현정 김호민 덕천 도명 무량수 박경주 박병성 박소현 박혜선 법안정 보경 보리화 손석현 손정우 손현경 심주영 안도각 여심지 여일정 연화법 연화심 월명심 유승우 윤동환 윤서우 윤서준 이도현 이루나 이명환 이서아 이서현 이성우 이아솔 이영선 이울솔 이정화 이준 인명화 일월정 일해정 장지에 정화연 조혜연 청정지 황성녀 **지인사** 강인식 강창주 구용석 길광원 길지연 길지현 김학수 김한서 노진숙 문성윤 문유정 박옥선 박지우 유승완 윤관희 이강민 이강수 이명희 이연재 이은재 이준재 이지혜 이진용 임재연 전화자 지민석 지형우 홍성우 **총지사** 총지사신정회 강연수 강진복 강희주 김민성 김성민 김유미 김윤정 김은미 김은숙 김정한 김현숙 김호경 김희영 노윤정 노지영 박상영 박석호 박성연 박장우 박정완 박정희 백귀임 백지순 손경옥 송낙전 신영자 신중구 엄향순 이상철 이성호 이수민 이완형 이인성 이재호 이정수 이정준 이정화 이제경 이지은 장근도 장옥태 장유경 장인희 장재혁 장준기 정연옥 정정화 정준교 정준형 조나현 조시는 조여은 조원호 조이진 조준래 조현상 조현진 조현후 조형래 진경석 진영만 진영연 청해각 최영아 최혜선 한상옥 허순영 홍정화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강대길 강문식 강용미 강유솔 강유준 강인식 강준희 강태현 박시우 박시는 박철용 권은옥 강감미자 김도이 김명애 김모빈 김승관 김승빈 김승선 김정희 김제호 김중훈 김준호 김하람 민순분 박경신 박삼순 박진홍 박진희 박태규 박태영 박현자 배정임 배한길 배한일 배한준 백순이 손승희 안대경 안원석 안윤경 안지운 안지현 안지호 염미경 염미예 이가환 이광수 이수미 이연주 이정원 이중구 임수정 임지원 임진혁 장영이 정덕순 조홍래 최연희 최은영 최인혜 최향순 태규미 **법황사** 김미혜 김찬형 김철현 김현정 서복남 유승태 이위조 **혜정사** 강웅모 김경순 김사월 박병권 박시현 박영순 박준우 변기숙 신선미 안서아 안재석 안지환 이민명 이수연 이용순 이형주 임재성 임진규 정길오 정민 정수연 정용일 정용득 정은선 정혜희 최영래 최은정 홍복남 **홍국사** 강봉신 강신엽 박금순 배영희 송서진 신영주 신운산 채종을 하경범 **중원사** 박귀선 윤석호 윤채원 윤표근 윤한희 전옥란 전지원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박선에 **건화사** 건화사신정회 김경연 김순화 김쌍금 김완진 류순옥 신정식 신정택 윤복자 이순필 최복조 **국광사** 권장수 김동진 김말순 김상필 김숙자 김순란 김점순 김정자 김현아 남경희 남성춘 문두리 박복련 백만경 백순애 손경숙 신복자 엄종남 오세울 윤용화 이달우 이우용 이상환 이재환 이필리 일수제 장영자 최윤정 한지우 황정식 **단음사** 광규환 광명환 광무순 광병진 광병호 광정미 광정희 광창환 광채원 권무현 김연수 김윤수 박상열 박상진 배재수 서봉조 신말심 윤숙희 이길태 이동우 이민구 이숙현 이재열 이진환 이태구 장민아 장수진 장정숙 전명환 전치조 전형근 최일기 최종순 황동욱 **선림사** 김경희 김자희 김경악 배복선 석상민 석승의 윤봉선 이복선 이성우 임가연 조병숙 지종영 **수인사** 교도일동 고신범 공경원 공관식 공재호 구분수 권오남 김경태 김민재 김숙희 김예선 김진 김진아 김진영 김지규 김태선 김현우 박금화 박현석 손원락 손위호 송영철 송영환 양순이 엄재영 오금연 윤태원 이귀선 이남이 이미향 이성이 이성훈 이은희 이태호 장정순 정순득 최은식 최현창 황갑선 **승천사** 김분식 김용관 김희선 이선분 이춘자 최다정 최성호 최정운 **계석사** 김근태 김남일 김도림 김무현 김민희 김선미 김양구 김연성 김연수 김연재 김연정 김유평 김유정 김윤지 김지우 김태일 김태희 김호일 반명화 손대현 손정우 송근화 송영엽 안소영 안용준 야마다유스케 오수정 이상민 이영훈 이윤재 이진승 이현숙 이현승 이효원 **부산경남교구** 부산경남지회 **관음사** 관음사신정회 강봉기 김경인 김인선 김정희 김홍옥 노두선 노주애 박귀화 박문자 박미정 박영숙 신막심 양순화 유연임 이동여 이말순 이상남 이선경 이옥선 이임순 정성숙 조은정 조호연 진혜원 최순옥 최순자 최영자 한애자 한혜영 **단향사** 공순옥 김막숙 김학련 박귀임 박사임 박화자 방원순 유종선 이상재 이은정 이점선 정두순 정정이 **덕화사** 덕화사신정회 김광문 김길엽 김현수 박기형 박명숙 박재현 박필남 방성희 백영숙 성재낙 송복득 윤숙희 이갑연 이동우 이태조 정경애 정성운 정지훈 정희련 조수진 조은아 채춘자 최의순 최해남 하은정 한공심 한용심 **밀행사** 김대연 김민주 김별님 김순주 김유정 김주현 김태순 김현숙 남동균 남동운 남윤성 박순덕 박순영 박영자 박재경 박정자 박희숙 서윤옥 서윤조 성연주 성정화 성종윤 성지안 성치인 성현식 신경옥 신경희 신상륜 신승환 신영자 신윤서 신준우 신지윤 신지호 심명미 안성희 양승엽 양승우 양종섭 양채운 염상부 윤서준 윤영규 이보라 이봉경 이영패 이은별 이재은 이중선 이중수 이지은 장분순 장화순 전초연 정시호 조귀순 조화자 차숙이 한상기 한중훈 한해담 한해은 허미자 허순자 황형 **법성사** 강경리 강병구 김민서 김민지 김선숙 박경규 박소라 박재철 백점순 소생영 신영록 신영진 신중철 신혜영 안병민 안병선 이동기 이순점 이영석 이정미 이춘자 장지옥 주민정 주병일 주현정 지영심 최옥희 하성여 하정식 하정화 황윤경 황의운 황효정 **삼밀사** 권길 김문주 김재한 김준서 김화자 박미희 박정수 박중기 박진성 배숙자 백길두 백춘찬 우귀연 이옥자 전윤경 전현자 하명순 **성화사** 강나원 강동관 강보민 강상중 강은정 강인형 강차선 강태경 강태양 김경숙 김경인 김미나 김민권 김병국 김성준 김소심 김신 김옥임 김은혜 김이웅 김주연 김지원 김필환 김휘 남고현 남시연 남윤주 류춘득 박계립 박동규 박동수 박민영 박성현 박순배 박정은 박주연 박찬휘 박철순 배정혜 서정순 석우성 석문화 석진규 석진욱 성다연 성현재 손태희 양길호 양동기 양석민 양세은 양인숙 양인철 양찬영 오순자 윤꼭지 윤부옥 이광선 이동건 이동규 이동수 이동우 이명재 이미루 이민홍 이승민 이승우 이아린 이연우 이우창 이유석 이윤석 이은하 이정민 이중미 이주석 이찬진 이창민 이하나 이하린 이하정 이하철 이해찬 이현석 이현우 이형옥 이홍렬 이화영 이홍재 이희영 이희찬 정성린 정옥연 정우진 정운심 정재우 정정심 정종옥 정진영 정화섭 조용덕 조용주 조창원 최미영 한혜수 허태연 황주호 **실보사** 무명씨 박구태 박기에 박기태 박상하 박성호 박수현 박영호 박정옥 박현정 배갑순 배경훈 서윤제 서준형 서지우 손성희 신상훈 윤호순 이동현 이순옥 이정운 이한표 조현준 한장미 **운천사** 운천사신정회 강영우 강태경 고계순 김계화 김덕원 김덕중 김동훈 김민준 김민지 김삼연 김성숙 김소령 김숙련 김유성 김윤서 김인규 김지성 김지울 김지후 김태리 김형진 노광래 박대성 박보경 박상현 박세연 박소은 박진희 박찬호 박형준 오은영 오주화 이강두 이강민 이남순 이동건 이병민 이상용 이순옥 이승민 이승찬 이중성 이지빈 이진희 이태남 임윤경 전창민 전호민 정태영 조두련 조정에 조춘래 최성환 최원오 최정필 한경민 **자석사** 강부인 강태용 광연아 김성희 김순정 김영희 김옥순 김정숙 박순택 박영출 배무자 신순영 양정금 여순애 옥영혜 우금란 유원혜 이영일 이영희 이정희 이지은 장순남 조삼순 조영수 조영우 조영호 조진열 조창환 최병철 최점주 최태연 **정각사** 정각사신정회 자비회 강경중 강덕이 강동준 견명옥 견명주 견원성 견점식 고다연 구상범 구상이 구성근 구영득 구영수 구현정 김경태 김경호 김귀임 김귀자 김도영 김동수 김리아 김문진 김미자 김백진 김병주 김부강 김분숙 김석우 김선아 김성길 김성우 김성호 김소연 김수민 김수일 김수임 김연미 김원호 김윤경 김윤숙 김윤재 김은경 김점남 김정아 김정에 김정자 김정희 김중대 김지태 김진석 김진욱 김진화 김진희 김채운 김철민 김태경 김태훈 김팔연 김현수 남재옥 남재이 남진호 노윤호 노진울 노창근 노한근 류길자 류다혜 류연석 류현지 류호식 박경덕 남남조 박동주 박미란 박성옥 박숙희 박영수 박정수 박정언 박정홍 박진아 박진용 박천수 박희선 백일숙 서승희 서연주 서춘선 석종패 석창호 소연서 소정섭 송민교 송상원 송윤희 송채운 송형록 신성우 신용선 신인록 신판선 심명주 심수영 심은정 안수현 안신영 안준형 안준호 안지영 안철상 안한수 안형진 안희재 여진경 여찬명 여찬성 여춘길 염규만 염도학 오길자 오세영 오연자 오옥명 오윤경 오인숙 오현경 오현정 옥희자 유옥희 윤선자 윤희근 이금순 이동호 이말남 이문환 이상록 이상호 이설희 이수경 이시완 이시윤 이시훈 이영순 이용철 이은주 이재정 이정숙 이창석 이철규 이태숙 이현희 장보경 장은우 정복녀 정성화 정우석 정원철 정유라 정유원 정인숙 정주은 정지선 정춘자 정태영 조계래 조정훈 조지영 조향선 진성용 진우복 진우주 최경순 최교향 최영수 최정숙 한갑순 한칠수 황금조 황나영 황성두 황영순 황윤영 황호준 **화음사** 강경희 강미정 강민경 강순란 강점이 강지효 강태화 권덕근 권민경 권영준 권정희 김건우 김남현 김도운 김만선 김복출 김상림 김성찬 김순이 김영주 김정훈 김홍경 남달리 박상운 박옥순 박옥자 박윤정 박종현 백소현 백주희 백지우 서명득 송서아 송영근 송하나 송호영 윤인수 윤인용 윤희대 이귀선 이상아 이상필 이선민 이선우 이소연 이영선 이영희 이재호 이태운 장영순 정순향 정영미 정윤희 정의담 정재민 정화용 조명돌 조순해 최보진 최선희 최영록 최영미 최윤희 최정문 홍춘자 **동해중학교** 송인근 김진화 교직원불자회 **어린이집** 광방은 이민선 이지희 정동숙 진금선 최유정 하재희 **통리원** 김재동 김태원 김평석 박근진 박상우 박호선 유영신 이수협 전서호 **유가족** 외 손용수 손익상 신우철 만꽃회 배희재 안정숙 이연주 이현서 최순전 이상 성도합시다.